

##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 열것

노무현 16대 대통령 취임 한반도가 平和발신지 되게”

### 韓-美동맹 호혜평등의 관계 모색

노무현(盧武鉉) 제16대 대통령이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참여정부’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도약의 시대’라는 제목의 취임사를 통해 “새 정부는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에 번영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평화의 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한반도가 21세기에는 세계를 향해 평화를 발신하는 평화지대로 바뀌고,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동북아의 평화로운 관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증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대화 해결 ▲상호 신뢰와 호혜주의 실천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국민참여 확대 및 초당적 협력 등 4대 원칙을 천명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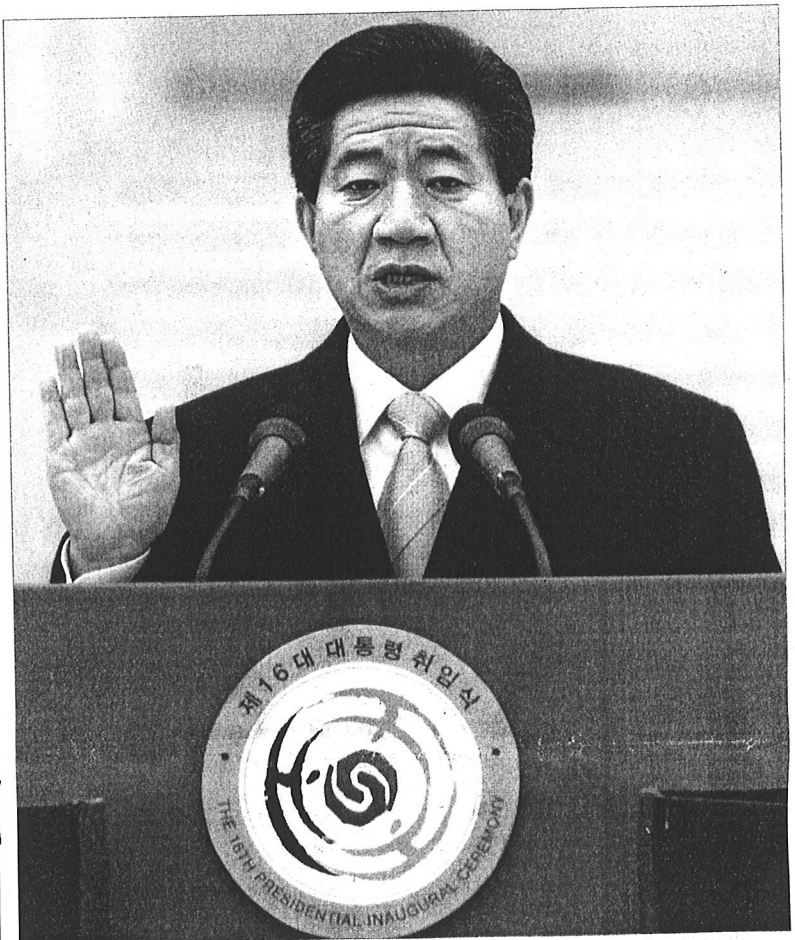
“북한의 핵 개발은 용인될 수 없다”며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원하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대해 “한미 동맹은 우리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한미 동맹을 소중히 발전시켜 호혜평등의 관계로 더욱 성숙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개혁과 관련, 노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구조적·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지도층의 뼈를 짚는 성찰을 요망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부터 바뀌어야 하고 정부부터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위해 새 정부는 지역정당인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국가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강력한 지방분권화 방침을 밝혔다.

/황정미기자 bird@segye.com



국민에게 선서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것’을 국민앞에 선서하고 있다. /이범석기자

관련기사 3-4-5-6-7-10-22-23-25면 화보11면

### 盧 “北核문제 한국이 주도”

고이즈미와 첫 정상회담...韓-日해저터널 거론도

파월과 면담선 “주한미군 주둔 변화 있을것”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폴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과 상호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한국인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일본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한일 간에 해저터널을 뚫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지만 북한 때

문에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다”면서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해저터널 착공 문제가 경제인들 사이에서 다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 북핵, 과거사, 미래문제 등 모든 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며 “노 대통령이 밝힌 평화번영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북한에 고립을 자초하지 않고 국제사회에 참여하면 얻는 게 더 많다는 점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창익·박성준기자 daniel@segye.com

盧·고이즈미 정상회담▶2면에 계속

### 파월 “北식량 10만톤 조건없이 지원

韓-美관계 대등... 정책결정 한국과 협의할것”

폴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25일 북한에 조건 없이 식량 10만t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파월 장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올해 1차로 식량 4만t을 제공하고,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추가로 6만t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핵문제와 대북 식량지원의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파월 장관은 또 “노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다자(多者)방식 해결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다”고 전하고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이 이미 포기해야 할 것을 다시 포기한다고

世界日報（韓国）2003年2月26日（水）

## 平和と繁栄の東北アジア時代を開く

盧武鉉 第16代大統領就任 韓半島が平和の発信地となるように

## 盧 “北核문제 한국이 주도”

고이즈미와 첫 정상회담…韓-日해저터널 거론도

과월과 면담선 “주한미군 주둔 변화 있을것”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과 상호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한국인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일본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한일 간에 해저터널을 뚫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지만 북한 때

문에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다”면서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해저터널 착공 문제가 경제인들 사이에서 다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 북핵, 과거사, 미래문제 등 모든 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었다”며 “노 대통령이 밝힌 평화번영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북한에 고립을 자초하지 않고 국제사회에 참여하면 얻는 게 더 많다는 점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창익·박성준기자  
daniel@segye.com

盧-고이즈미 정상회담➡2면에 계속

## 盧武鉉 “北朝鮮の核問題は韓国が主導”

小泉と初の首脳会談…韓日海底トンネルの議論も

盧武鉉大統領は 25 日、日本の小泉純一郎総理と日韓首脳会談を行ない、続いてコリン・パウエル米国国務長官と面談し、北朝鮮核問題の平和的解決のための協力と相互交流拡大について論議した。

盧大統領は日韓頂上会談で北朝鮮核問題と関連して“重要な問題について韓国国民と無関係に進められることには同意できない”とし、韓国の主導的役割を強調し、“日本が北朝鮮に影響力を行使して欲しい”と注文した。盧大統領は“日韓間に海底トンネルを掘るべきだという意見があるが、北朝鮮のために実感できないようだ”としながら“北朝鮮問題が解決されれば海底トンネル着工問題が経済人らの間から再度出てくるだろう”と語った。

小泉総理は“日本人拉致問題、北朝鮮核問題、過去の歴史、未来問題など全てを正常化するためピョンヤンを訪問した”とし、“盧大統領が表明した平和繁栄政策が成功するよう、北朝鮮に孤立を自ら招くことなく国際社会に参加すれば得るものはさらに多いということを説得してゆく”と語った。